'9·1세제 개편'으로 면세유 끊기고 농특세 폐지 위기

광주·전남 농민들 '뿔났다'

벼랑 끝 농심 "농업 포기 하라는 건가"

농민단체 "농산물 출하 거부 투쟁" 경고

정부의 '9·1세제개편'으로 농업용 면세경유의 공급이 끊기고 농어업 경쟁력강화

를 위해 도입된 '농어촌특별세(이하 농특세)'도 2010년 폐지가 예정되면서 광주·전남 농민들의 반발이 일고 있다.

지역 농업인과 농민단체들은 "개방파고 때문에 우리 농촌과 농업이 벼랑 끝에 몰려 있는데, 정부 지원을 줄이는 것은 농업을 포기하라는 얘기"라며 "농산물 출하거부 투쟁 등을 통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1일 발표한 '2008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재정부는 농업용 난방기에 대해 면세 경유를 공급하지 않는 내용을 포함시켜 조세특례제한법 농림특례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농업용으로만 사용돼야 할 면세 경유가 자동차 등 다른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또 재정부는 열교환식 온풍난방기와 온수보일러는 2009년 7월1일 이후 출고분부터, 경유와 등유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직화식 온풍난방기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이 개정되는 대로 면세경유 공급을 중단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농업계는 농업용 난방기에 면세경유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난방비 부담이 큰 시설농가들이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2007년 농업용 면세유의 60.5%가 난방기에 사용됐으며 농업용 난방기 연료의 86.3%가 경유였다.

화순 농민 K모(66)씨는 "등유는 경유보다 열효율이 떨어지는데다 기계 마모도 심해 농가들이 사용을 꺼리고 있다"면서 "면세경유 공급을 중단한다면 시설농가에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걱정했다.

정영석 전농 광주·전남연맹 사무처장은 "식량자급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나라에서 농업을 산업 구조조정의 대상으로 규정해 각종 지원책을 걷어치운다는 발상부터가 문제"라며 "최근 각종 직불금 등을 신설, 농업 경쟁력 확대에 나선 미국과 어떻게 경쟁해야 할 지 막막하다"고 말했다.

재정부는 또 2010년부터 농특세를 본세에 흡수통합키로 했다. 농특세는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타결 직후인 1994년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농어민 후생복지사업 등을 위한 재원조달(10년간 15조원)을 위해 도입된 목적세로, 과세시한이 2014년 6월 말까지 10년간 연장된 바 있다.

이에 대해 농민단체들은 "농특세가 사라질 경우 농어촌 지원사업이 다른 사업에 밀려 위축될 수 있다"면서 "정부가 계획적인 농업정책을 수립할 때까지 각 시·군별로 농산물 출하거부 투쟁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착한 바구니' 선물 가득 … 현대백화점은 착한 소비 트렌드에 맞춰 3일 공정무역 인증상품으로 구성한 '착한 바구니' 햄퍼 선물을 선보였다. 공정무역은 제 3세계 노동자에게 적정 임금을 지급하고 생산된 원료를 공정한 가격에 거래하는 방식으로 제 3세계 빈곤문제를 해결하자는 글로벌 운동이다. /연합뉴스

정유사 아스팔트값 인상 반발

아스콘업계 "생산 중단하겠다"

건설현장 막대한 공사 차질 우려

광주·전남을 비롯한 전국 아스콘 생산업체들이 정유사들의 아스팔트값 인상에 따른 '생산 불가' 방침을 밝혀 건설현장에 막대한 공사차질이 예상된다.

3일 한국아스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는 "최근 정유사들이 일방적으로 원자재인 아스팔트값을 37.5%나 인상했다"며 "이 가격으로는 도저히 수지를 맞출 수 없는 만큼 생산중단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아스콘조합연합회는 또 5일 전국의 지방조합 이사장과 연합회 이사장들이 모인 가운데 공장 가동 중단 등을 논의할 방침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아스콘 업계가 강경 대응에 나선 것은 정유사들이 가격 인상을 취소한 지 한 달 만에 일방적으로 가격을 올린 데 대한 항의의 의미로 풀이된다.

실제 정유사들은 8월1일부터 아스팔트값을 37.5% 올릴 예정이었으나 아스콘 업계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인상을 취소한 바 있다.

또 지난 5월 조달청과 1년치 공급계약을 맺은 상태에서 아스팔트값이 인상될 경우 고스란히 손해를 떠안아야 한다는 점에서도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계약 당시 kg당 400원이던 아스팔트값이 550원까지 올랐지만 인상분을 제품가격에 반영시키지 못하게 된 것이다.

광주·전남아스콘조합연합회 관계자는 "아스팔트가 kg당 400원일 때 조달청과 맺은 공급가격이 간신히 제조원가를 맞춘 상태였는데 여기서 150원이나 오르면 도저히 수지를 맞출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아스콘 업계는 지난 2일 조달청을 방문해 아스팔트 가격 인상폭에 맞춰 아스콘 관급 가격을 올려달라고 요구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낀 업체' 중견기업 권익보호 나섰다

"中企·대기업 사이 혜택 없다" … 중견기업법 입법 추진

중소기업과 대기업 사이에 낀 이른바 중견기업들이 자신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나섰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이하 중견련)는 3일 서울 힐튼호텔에서 '중견기업 입법화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중견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개발과 중견기업법의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견련은 이를 위해 지난 7월부터 실시한 중견기업 현황분석 및 경쟁력 강화방안의 마련을 위한 설문조사와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이달 말께 중견기업 관련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중견련은 또한 중견기업 입법화에 관한 기업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입법화의 당위성을 대외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중견련이 이같이 적극적인 행보를 보인 까닭은 정부지원을 받는 중소기업과 자체 경쟁력을 가진 대기업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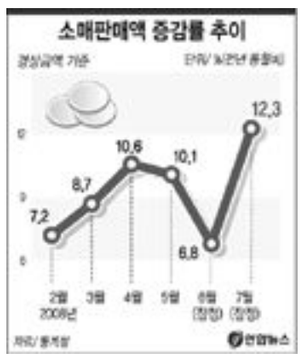
특히 정부가 최근 관계회사 제도를 도입하고 중소기업 졸업기준을 강화해 2천여개 중소기업을 솎아내겠다는 내용의 중소기업 제도 개혁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이 시급해졌다.

중견련은 다만 현행 '상시 근로자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라는 중소기업 기준(제조업)을 근로자수와 자본금 규모 모두를 충족시킬 경우로 바꾸고 종업원수 1천명 이상, 자산 5천억원 이상 및 해당 기업이 30% 이상 투자한 회사 등을 대기업으로 규정해 이 사이에 있는 기업들을 중견기업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역 대형 유통업체 '장사 잘했다'

냉방용품 판매 호조 … 7월 판매액 1,244억

전년보다 6.1% 상승



물가 급등에 따른 명목상 판매액 증가와 냉방용 가전제품 판매 호조 등으로 인해 광주·전남지역 대형 할인마트와 백화점의 매출액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광주전남지방 통계청에 따르면 7월중 광주의 대형 할인마트와 백화점 등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1천24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인 지난해 7월보다 6.1% 증가한 것으로, 물가 상승에 따른 음식료품·가전제품 등의 매출액 증가와 에어컨 등 냉방제품 판매 호조 등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전남도 7월중 대형소매점 판매액이 675억원에 달하면서 1년 전보다 13.3%나 늘었다.

이같은 상황은 전국의 경우도 비슷하다. 7월중 전국의 소매판매액은 20조7천874억원으로 1년 전에 비해 12.3% 증가했다.

이는 2006년 1월(12.7%) 이후 가장 높은 증가폭으로, 고유가 등 전반적인 물가 상승 속에 계절적인 영향으로 냉방용품 판매가 크게 늘었다.

상품군별로는 차량용 연료(휘발유·경유·LPG) 판매액이 1년 전보다 28% 늘었고, ▲의약품·의료용품(14.3%) ▲화장품·비누(13.9%) ▲식료품(8.7%) 등의 증가세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충남이 24.1% 늘어난 것을 비롯, 경북(15%), 제주(14.5%), 경남(14.2%), 강원(13.4%), 전북 (7.5%) 등의 판매액이 크게 늘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LPG 공급 가격 추가 인하 가능성

수입가 두달 연속 하락 이어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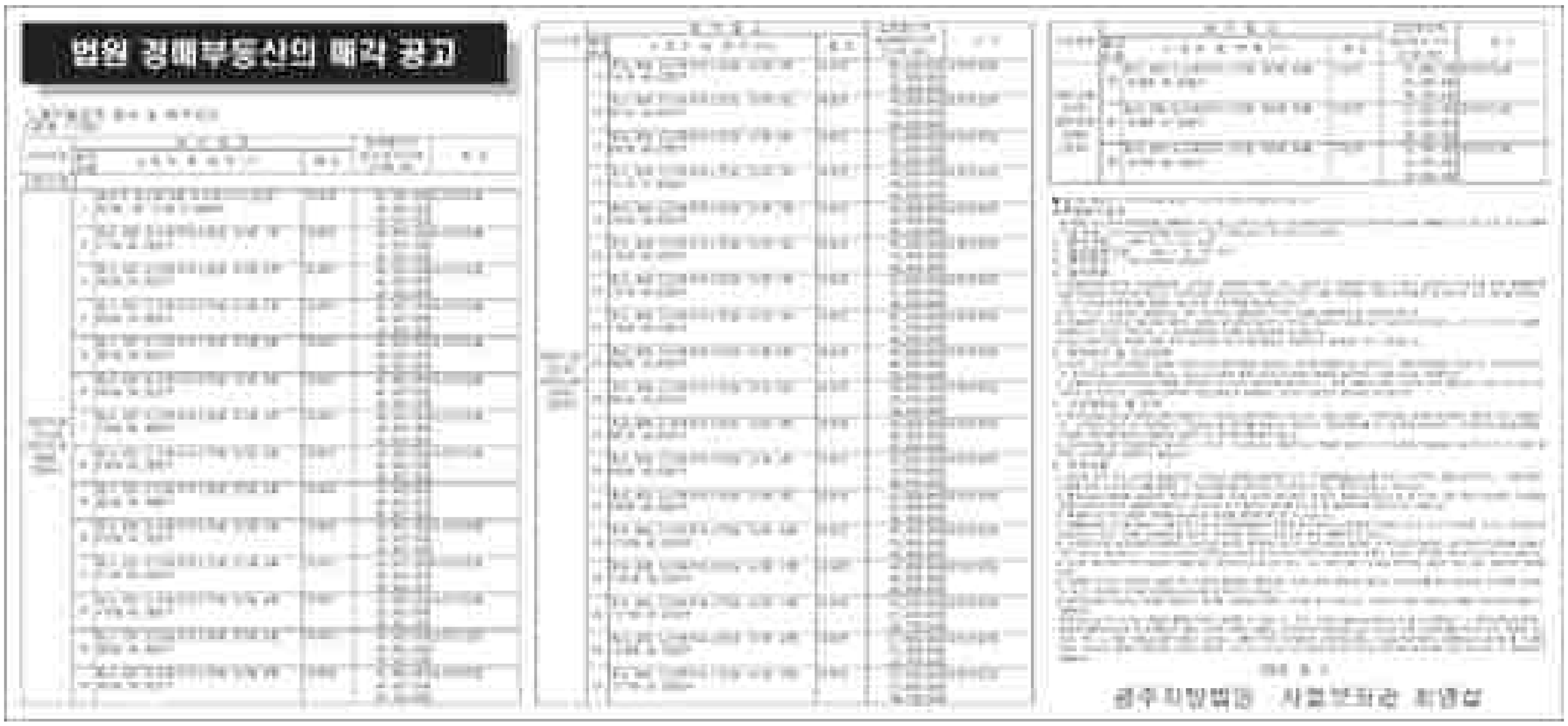
국제 유가 하락에 힘입어 액화석유가스(LPG) 수입가격이 8월에 이어 9월에도 떨어지면서 국내 LPG 공급가격 추가 인하 가능성에 청신호를 던지고 있다.

3일 가스업계에 따르면 이달 LPG 수입가격은 프로판가스는 t당 800달러, 부탄가스는 t당 840달러로 각각 결정됐다. 이는 8월에 견줘 프로판가스는 t당 60달러, 부탄가스는 t당 50달러 떨어진 것이자, 두 달 연속 하락한 것이다.

LPG 수입가격은 7월에 프로판가스는 t당 905달러, 부탄가스는 t당 950달러를 기록하며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8월 프로판가스는 t당 860달러, 부탄가스는 t당 890달러로 떨어졌었다. /연합뉴스

産銀, 中企 2천억 지원

산업은행은 다음 달까지 중소기업에 2천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3일 밝혔다.

산업은행은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업은행과 함께 간접금융방식(on-lending)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간접금융방식은 기업은행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대출 또는 투자할 업체를 선별하면 산은이 자금을 공급하고 신용도 보증해 주는 방식이다.

/연합뉴스